

주간 통일정세

2017-49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2.9	北 김정은, 백두산 올라...삼지연읍 주요시설도 시찰(연합뉴스)
	12.10	北 신문 "해상봉쇄는 선전포고...수수방관 않을 것"(연합뉴스)
	12.12	北 군수공업대회 개막...“핵무력 질량적으로 더 강화해야”(연합뉴스)
	12.13	北 김정은 “핵무력 완성, 역사적 승리...최강 핵강국으로 더 전진”(연합뉴스) 베일 벗은 北 핵·미사일 ‘새 라인업’...수장은 태종수(연합뉴스)
	12.14	北 군수분야 종사자 “결사대 정신으로 핵무력 더욱 강화할 것”(연합뉴스)
군사	-	-
경제	12.9	“북·러 3분기 교역액 작년比 20% 감소”(연합뉴스)
	12.11	러 “내년 北노동자 쿼터 없어...기존 허가자는 계속 일할 것”(연합뉴스)
사회 문화	-	-
외교 국방	12.9	北 ‘예루살렘 수도 인정’ 美 비난...“후과 책임져야”(연합뉴스)
	12.12	北 통신 “러시아 국방부 대표단 평양 도착”(연합뉴스)
	12.13	틸러슨 美국무 “北과 전제조건 없이 첫 만남 용의” 파격 제안(연합뉴스)
		틸러슨 대화 제안에 백악관 “트럼프 대북견해는 바뀌지 않았다”(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12.9	백두산 방문	최룡해, 김용수, 조용원, 리상원, 양명철, 마원춘	-
12.9	삼지연군 현지도	최룡해, 김용수, 조용원, 마원춘	-
12.12	제8차 군수공업대회 개막식 참석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12. 9.

■ 北 김정은, 백두산 올라·삼지연읍 주요시설도 시찰(연합뉴스)

- 중앙통신은 9일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장군봉 마루에 거연히 서시어 백두의 신념과 의지로 순간도 굴함 없이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실현 해오신 격동의 나날들을 감회 깊이 회억(회고)하셨다”고 밝혔으며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백두 성산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리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다”고 전했다. 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김 위원장은 또 백두산사적비와 교양마당을 잘 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필인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언제, 어디서나 잘 보일 수 있게 할 것을 지시함.
-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 개건된 삼지연군 여관 과 삼지연읍 종합상점, 삼지연읍에 신축된 주택, 완공을 앞둔 삼지연 청년역과 삼지연못가역 등도 시찰했으며, 그는 “우리 인민이 마음의 태를 묻고 사는 정신 적 고향인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군, 남들이 흉내 조차 낼 수 없는 특색 있는 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사는 군으로 꾸리기 위해서는 잡도리부터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2017. 12. 12.

■ 北 군수공업대회 개막·“핵무력 질량적으로 더 강화해야”(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제8차 군수공업대회가 11일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며 “대회에는 대륙간탄도로켓(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을 비롯하여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방과학연구부문, 군수공업부 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력혁신자, 일꾼들과 연관 단위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 했다”고 밝힘.
- 태종수 노동당 부위원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의 눈물 겨운 애국 헌신과 굴함 없는 공격 정신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남들이 수십 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할 군사적 기적들을 불과 1~2년 안에 이룩하며 세계적인 핵강

국, 군사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었다”고 주장함.

- 특히 중앙통신은 태종수가 “다시 한 번 영웅적 투쟁을 벌여 우리 식의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라며 “오늘의 대성공을 더 큰 승리를 위한 도약대로 삼고 계속 박차를 가하여 국가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2017. 12. 13.

■ **北 김정은 “핵무력 완성, 역사적 승리…최강 핵강국으로 더 전진”(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2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원자탄,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화성-15’형을 비롯한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고 국가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선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김정은은 연설에서 “우리의 국방공업, 자위적 국방력은 상상할 수 없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고 우리 공화국은 세계 최강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승리적으로 전진·비약할 것”이라면서 “주체적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주장함.
- 중앙통신은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수공업 부문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꾼들에 대한 당과 조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이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식의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최후 승리를 앞당기는 데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덧붙임.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12. 13.

■ **베일 벗은 北 핵·미사일 ‘새 라인업’…수장은 태종수(연합뉴스)**

- 북한이 11~12일 평양에서 개최한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는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개발·생산하는 북한 내 군수 분야의 핵심 간부들이 집결했으며, 11일 열린 첫날 회의에서는 태종수 노동당 부위원장이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 교훈 등을 평가하는 ‘보고’를 했는데, 주석단 참석자 중 가장 먼저 호명되고 군수 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해 가장 먼저 연설했다는 점에서 태종수는 노동당 군수담

- 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그동안 노광철의 공식 직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2경제위원장 자격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이번 대회에서는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과 전일호 군 중장(국방과학원 소속 추정)의 약진도 두드러졌는데, 지난달 29일 이뤄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총지휘한 두 인사는 이번 대회 주석단에서 김정은의 바로 양 옆자리에 앉아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이들의 약진과 대조적으로 그동안 미사일 개발을 주도해 온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음.
 - 이번 대회 주석단에는 핵실험 등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승무·홍영철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도 자리했는데, 북한의 핵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홍승무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대장 계급장을 달고 공식 석상에 등장했으며, 북한 매체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대회 주석단에서는 핵 개발 실무책임자인 리홍섭 핵무기연구소장의 모습도 포착되었음.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12. 14.

■ 北 군수분야 종사자 “결사대 정신으로 핵무력 더욱 강화할 것”(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제8차 군수공업대회 참가자들의 맹세문 채택 모임이 13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라며 “모임에서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낭독되었다”고 밝힘.
- 통신은 “대회 참가자들이 국방공업 전선의 전진 속도이자 혁명의 전진 속도라는 것을 순간도 잊지 않고 영광찬란할 주체혁명의 대로를 무적의 총대로 열어젖히는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함.
- 이어 “국방 과학자·기술자들이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체질화한 결사대 정신으로 과감하게 돌진하여 국가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임.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12. 10.

■ 北 신문 “해상봉쇄는 선전포고…수수방관 않을 것”(연합뉴스)

- 북한은 10일 미국 등에서 최근 대북제재의 하나로 해상수송 차단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해상봉쇄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무자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관영매체를 통해 거듭 위협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해상봉쇄 책동을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난폭한 유린행위로, 또 하나의 공공연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만일 해상봉쇄 기도를 실천에 옮기려는 자그마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우리의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자위적 대응조치가 뒤따르게 되리라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며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은 해상봉쇄 책동이 불러오게 될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부질없는 망동을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 특이사항 없음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12. 9.

■ “북·러 3분기 교역액 작년비 20% 감소”(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의 올해 3분기(7~9월) 교역액은 1천 311만 달러로, 작년 동기(1천 632만 달러)보다 약 20% 감소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함.
- RFA가 러시아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북한의 대(對) 러시아 수입액은 약 1천 168만 달러, 수출액은 약 144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수입은 25% 감소했고, 수출은 56% 증가함.
- 북한의 3분기 대러 수입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광물성 연료와 석유(960만 1천 626달러)였으며, 수출 품목은 의류(편물 포함)가 약 85만 116 달러로 금액이 가장 컸음.

2017. 12. 11.

■ 러 “내년 北노동자 쿼터 없어…기존 허가자는 계속 일할 것”(연합뉴스)

-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이행 차원에서 새해에 북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노동 쿼터를 할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미 노동 허가를 받은 북한인들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막심 토필린 러시아 노동부장관이 11일(현지시간) 밝힘.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토필린 장관은 이날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노동 허가를 받은 (북한) 사람들은 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토필린 장관은 지난달 24일에도 “(2018년) 쿼터에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할당은 없다”면서 “그동안 일해 온 북한 노동자들은 남겠지만, (9월) 11일 이후로 새로운 노동 계약이나 입국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12. 9.

- **北, '예루살렘 수도 인정' 美 비난...“후과 책임져야”(연합뉴스)**

- 외무성 대변인은 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쿠드스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쿠드스로 옮기기로 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결정은 국제적 합법성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의사에 대한 공공연한 무시이며 모독”이라고 지적함.
- 대변인은 “쿠드스의 지위문제는 예민한 문제로서 응당 팔레스티나 인민의 민족적 권리의 회복과 중동문제의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해결을 통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신성한 유엔 무대에서 한 주권국가의 ‘완전파괴’를 췌친(떠들어댄) 늑다리 미치광이이고 보면 이번 조치가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며 “이를 통하여 세계는 과연 누가 세계평화와 안전의 파괴자이며 국제사회의 불량배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2017. 12. 13.

- **틸러슨 미국무 “北과 전제조건 없이 첫 만남 용의” 파격 제안(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위기와 관련해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고 말함.

- 틸러슨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 기조연설 후 문답에서 “우리는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고 말함.
- 그는 “그냥 만나자. 당신(북한)이 원한다면 우리는 날씨 얘기를 할 수 있다”며 “사각 테이블인지, 둥근 테이블인지에 흥미를 갖는다면, 그것에 관해 얘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으며, 틸러슨 장관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지를 다룰 로드맵을 펼칠 수 있다”며 “(핵·미사일) 프로그램들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틸러슨 대화 제안에 백악관 “트럼프 대북견해는 바뀌지 않았다”(연합뉴스)**

-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과 관련해 애매모호한 성명을 내놨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위험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힘.
- 백악관은 이어 “북한의 행동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 틀림없이 북한 스스로에 대해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로이터는 백악관의 성명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승인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분석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7. 12. 12.

■ **北 통신 “러시아 국방부 대표단 평양 도착”(연합뉴스)**

- 러시아의 국방부 대표단이 12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빅토르 칼가노프 러시아 연방 국가방위지휘센터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국방성 대표단이 1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짧게 보도함.
- 중앙통신은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 목적이나 체류 기간, 예정된 일정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 특이사항 없음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2.10	한미연합사 “브룩스 사령관 美의회 등에 한국 상황 설명”(연합뉴스)		
	12.11		빅터 차 주한美대사 내정…美, 우리 정부에 임명동의 요청(연합뉴스)	
	12.13		로스 美상무 “한미FTA 개정협상, 신속하고 순조롭길 기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2.10	한중정상회담 앞두고 베이징서 정부·민간 교류행사 연이어(연합뉴스)		
	12.13	문대통령, 국빈 방중일정 시작…내일 한중 정상회담 (자유아시아방송)		
	12.14	한중 정상, ‘전쟁 불가’ 등 한반도 4대 원칙 합의(자유아시아방송)		
				시진핑 “한반도 전쟁·혼란에 절대 동의 안 해…대화로 풀어야” (연합뉴스)
				中 “난징대학살 추모식에 韓대사 보낸 건 中인민에 우호 표시” (연합뉴스)
	외교부, 韓기자 폭행에 “대단히 유감…철저조사 中에 강력요청” (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2.13	미국무 “北 유사시 핵무기 확보가 가장 중요...中과 방안 논의” (연합뉴스)	
			中, 미국의 대북 ‘무조건 대화’ 제안 환영...“대화·협상해결 지지” (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2.10	조셉 윤, 일본·태국 방문...‘北 미사일 발사’ 대응책 논의(연합뉴스)	
	12.13		日, 美의 대북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당황...“압력 높여야 하는데” (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2.10	“美, 중거리핵전력조약 위반 이유 러시아에 신규 제재”(연합뉴스)	
	12.13		크렘린, 킬러슨 北美 직접대화 제안에 “건설적이고 감동적” 환영 (연합뉴스)
	12.14		푸틴 “北과 직접대화 제안 킬러슨 발언은 아주 좋은 신호”(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2.13	中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日 다시 없을 평화 소중히 여겨야” (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12.9	중·러 군 수뇌부 회동...“실질적 군사협력 강화 공동노력”(연합뉴스)	

	12.11	중·러·인도 외무 회담 후 공동성명 “한반도 긴장에 깊은 우려”(연합뉴스)		
	12.12	韓美日 미사일 추적훈련 한 날 中·러도 합동방어훈련 ‘확인’(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련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12. 10.

■ 한미연합사 “브룩스 사령관 美의회 등에 한국 상황 설명”(연합뉴스)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와 싱크탱크 등에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미연합사령부가 10일 밝힘.
- 채드 캐럴 연합사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브룩스 사령관은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 대한 짧은 방문을 마쳤다”며 “(방미 기간) 브룩스 사령관은 미 의회, 싱크탱크, 국방부 부장관, 합참 차장 등에게 한국 상황과 한미동맹에 관해 직접 설명했다”고 밝힘.
- 캐럴 대변인은 “(브룩스 사령관의) 싱크탱크 관련 일정에는 미 외교협회(CFR), 신미국안보센터(CNAS),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브루킹스연구소 등과의 만남이 포함됐다”고 설명함.

2017. 12. 11.

■ 빅터 차 주한美대사 내정…美, 우리 정부에 임명동의 요청(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를 주(駐)한국 대사에 내정하고 우리 정부에 임명동의(아그레망)를 요청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알려짐.
- 백악관과 국무부는 지난 8월 조지타운대 교수인 차 석좌를 주한 대사에 사실상 내정했으며, 최근 장기간의 검증 절차를 마치고 한국 정부에 차 석좌의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전함.
-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차 석좌의 주한 대사) 조기 부임을 위해 간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아그레망 부여, 절차 여부는 현 단계에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밝힘.

2017. 12. 13.

■ 로스 美상무 “한미FTA 개정협상, 신속하고 순조롭길 기대”(연합뉴스)

- 월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 참석,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해 “신속하고 순조로운 협상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함.
- 그는 향후 개정협상 일정과 관련해선 “한국 측에 달려 있는데, 아직 시작도 되기 전이어서 언제 끝날지 예상하긴 어렵다”며 “우리는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발언함.
 - 그는 “대(對)한국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부분 적자”라며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의무규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함.

나. 한·중 관계

2017. 12. 10.

■ 한중정상회담 앞두고 베이징서 정부·민간 교류행사 연이어(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의 이달 13일 방중을 앞두고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교류 행사가 연이어 대규모로 열릴 예정임.
- 10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11일 한중 고위급 싱크탱크 포럼, 12일 한중 디지털 무역포럼, 13일 한중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한중 중소기업 상생협력 포럼, 14일 한중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이 각각 베이징에서 열릴.
- 한 소식통은 “사드 갈등이 심할 때만 해도 한중간 대형 교류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고 특히 중국 측 인사를 초청하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의 13일 방중을 앞두고 양국 교류 행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발언함.

2017. 12. 13.

■ 문대통령, 국빈 방중일정 시작…내일 한중 정상회담(자유아시아방송)

-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3일부터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으며, 첫 공식 일정으로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에 참석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외부 갈등 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함.
- 방중 이틀째인 1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법과 함께 경제, 문화 교류 정상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양국은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감안해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대신 각국의 입장을 담은 언론발표문을 조율해 각각 발표할 방침임.

2017. 12. 14.

■ **한중 정상, '전쟁 불가' 등 한반도 4대 원칙 합의(자유아시아방송)**

-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함.
- 양국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와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임.
- 양국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함.

■ **시진핑 “한반도 전쟁·혼란에 절대 동의 안 해…대화로 풀어야”(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반드시 지켜갈 것이며 전쟁과 혼란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공동 이익이 있다. 한국과 함께 전쟁 방지, 대화 촉구를 위한 소통·조율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남북한 간 대화와 접촉을 통한 관계 개선 추진을 지지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발언함.
- 시 주석은 이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차 밝히고, “한국측이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

■ **中 “난징대학살 추모식에 韓대사 보낸 건 中인민에 우호 표시”(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국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난징대학살을 애도하고 80주년 추모식에 노영민 주중대사를 보낸 데 대해 중국 인민에 우호를 보여줬다고 반색함.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방중 첫날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에서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을 언급하며 깊은 동질감을 표명하고 자신의 공향 영접 대신 주중 대사를 추모식에 보낸 데 대한 중국 측 평론을 요구받아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함.
- 루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을 대표해 중국 인민에 보여준 우호와 정에 찬성한다”면서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양국 인민은 일체

식민 침략에 공동으로 항거했으며 민족 해방 전쟁에서 이겨 전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밝힘.

■ **외교부, 韓기자 폭행에 “대단히 유감…철저조사 中에 강력요청”(연합뉴스)**

- 외교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방중을 취재중인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 요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다친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힘.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측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바로 응급조치가 이뤄졌으며, 정부는 중국 정부에 즉각 유감의 뜻을 전하고 사건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고 발언함.
- 노 대변인은 이어 폭행 가해자의 소속기관 등 후속 질문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현장과 좀 더 확인을 거친 후에 설명하겠다”고 답변함.

다. 한·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12. 13.

■ **美국무 “北 유사시 핵무기 확보가 가장 중요…中과 방안 논의”(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서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 발생시 핵무기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미국과 중국 고위 관계자들이 논의했다고 밝힘.
- 그는 또 중국은 북한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미국 측에 알렸으며, 미국은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에 가야

- 만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으로 복귀하겠다는 점을 중국 측에 약속했다고 전함.
- 틸러슨 장관은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좋은 상황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中, 미국의 대북 ‘무조건 대화’ 제안 환영…“대화 협상해결 지지”(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의 루캉(陸慷)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 제안이라며 환영함.
- 루 대변인은 “대화과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생각과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발언함.
- 그는 이어 “중국은 쌍궤병행(雙軌並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했다”면서 “양측이 서로 마주 보며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나. 미·일 관계

2017. 12. 10.

■ **조셉 윤, 일본·태국 방문…‘北 미사일 발사’ 대응책 논의(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일본과 태국을 방문, 북한의 최근 신형 ICBM(대륙 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5’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표가 오는 11~15일 일본 도쿄와 태국 방콕에서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대북 압박·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믿을 수 있는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 두 나라와의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국무부는 전함.

2017. 12. 13.

■ **日, 美의 대북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당황…“압력 높여야 하는데”(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내에서 곤혹감이 퍼지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함.

- 이 통신은 일본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 다른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우려가 크다고 소개함.
- 외무성의 한 간부는 교도통신에 “(틸러슨 장관 제안이) 미일 양국 정부 방침과는 명확하게 다르다. 미국 정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궁금하다)”고 발언함.

다. 미·러 관계

2017. 12. 10.

■ “美, 중거리핵전력조약 위반 이유 러시아에 신규 제재”(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위반을 이유로 신규 대러 제재를 승인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를 인용해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한 미국 고위관리는 폴리티코에 “러시아가 냉전 시절 (미국-소련 간에) 체결된 INF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대러 신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힘.
- 미국은 러시아가 INF 조약으로 금지된 신형 순항미사일을 배치한 것이 조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이 관리는 소개함.

2017. 12. 13.

■ 크렘린, 틸러슨 北美 직접대화 제안에 “건설적이고 감동적” 환영(연합뉴스)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나선 것을 “건설적이며 감동적”이라고 환영함.
- 또한 “이는 대결적 수사와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보도 절대적으로 비건설적이라는 러시아 측의 그간 호소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면서 “따라서 (틸러슨 장관의) 그러한 발언은 당연히 만족감을 불러일으킨다”고 거듭 환영을 표시함.

2017. 12. 14.

■ **푸틴 “北과 직접대화 제안 킬러슨 발언은 아주 좋은 신호”(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한 렉스 킬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환영하며 미국과 북한이 상호 도발을 중단하고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함.
-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례 연말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킬러슨(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직접 접촉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미국 지도부 전체와 국무부에서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평가함.
- 또한 “우리가 이처럼 상식에서 출발해 움직인다면 러시아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발언함.

라. 중·일 관계

2017. 12. 13.

■ **中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日 다시 없을 평화 소중히 여겨야”(연합뉴스)**

- 난징(南京)대학살 80주년 추모식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 참석한 위정성(俞正聲)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주석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갈 뜻을 밝힘.
- 위 주석은 13일 ‘난징대학살 희생동포 기념관’에서 거행된 추모식에서 “올해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 내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으며 중국과 일본은 양국 인민의 근본이익에서 출발해 평화,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로 나아가며 세대 간 우호를 기반으로 인류평화에 공헌해야 한다”고 발언함.
- 또한 “친성혜용(親誠惠容·친밀·성의·호혜·포용) 원칙과 선린우호 이념에 따라 이웃을 동반자로 한 주변외교 방침으로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 관계를 심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마. 중·러 관계

2017. 12. 9.

■ 중·러 군 수뇌부 회동…“실질적 군사협력 강화 공동노력”(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의 군 수뇌부가 8일 모스크바에서 회동해 양국 간 실질적 군사협력 강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함.
- 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을 총지휘하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사(張又俠)는 지난 8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러한 합의에 도달함.
- 장유사 부주석은 이날 회동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도 아래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협력 파트너십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는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으며 양국 군의 전략적 조율 강화를 위해 새로운 협력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2017. 12. 11.

■ 중·러·인도 외무 회담 후 공동성명 “한반도 긴장에 깊은 우려”(연합뉴스)

- 11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5차 러시아, 인도, 중국 외교장관 회의(RIC) 후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결과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힘.
- 특히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극도의 긴장 상태인 한반도 상황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로드맵에 따라 정치적·외교적 수단으로 문제를 푸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보도함.
- 3국 외교장관은 또 “아시아-태평양의 지역 안보와 경제 구조가 다자주의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에 기반하고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포함해 역내 안보 대화를 증진하겠다”고 강조함.

2017. 12. 12.

■ 韓美日 미사일 추적훈련 한 날 中·러도 합동방어훈련 ‘확인’(연합뉴스)

- 한국·미국·일본 3국이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경보훈련에 들어간 날 중국과 러시아 군도 합동으로 미사일방어 훈련을 실시함.

- 12일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웨이신(微信) 계정을 통해 러시아군과 합동으로 11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양국 지휘사령부간 미사일방어 컴퓨터 훈련 ‘공중 안전-2017’을 실시한다고 밝힘.
- 중국과 러시아 군의 이번 훈련은 한미일 3국이 11~12일 한국 및 일본 인근 해역에서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경보훈련을 한 때와 일치함.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2.11	유엔[인권보고관 “귀순병 韓당국 의해 공개적 다뤄진 방식 유감”(연합뉴스) 안보리 4년 연속 北인권유린 성토..“김정은 정권유지 수단”(연합뉴스) 귀순 탈북 병사 질주는 자유향한 2천500만 北주민의 질주(연합뉴스)	
	12.12	폴란드 노동부 “숨진 북한 노동자 보상금 지급·유족 전달 여부 확인 안돼”(미국의소리) “북 납치문제 해결 난망” 전 주한미군 일본서 시뻘(자유아시아방송) 국제연합 ‘북 반인도범죄 김정은 등 제소 촉구(자유아시아방송)	
		유엔 북인권보고관 “북 책임 규명위해 시범 전문가 채용 예정(자유아시아방송)	
	12.14	킨타나 北인권보고관 “女종업원들 면담추진…경위 확인해야”(연합뉴스) 미 헤일리 대사 “북한정권 인권유린 끝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미국의소리)	
	12.15	로버트 킹 전 특사 “북한 정권 교체 없이도 인권 개선 가능”(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12.12	北유엔대표부 “인권문제 없다”..안보리 인권논의 반박(연합뉴스)
		12.13	북한 석탄가격 작년의 반 토막(자유아시아방송) 북, 휴대전화 훔친 후 돈 요구하는 범죄 급증(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12.11	태영호 “김정은 북 주민 의식 변화 두려워해”(자유아시아방송)
		12.12	한국 국가인권위, 유엔에 북한 억류 한국인 조사 요청(자유아시아방송)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2.12.	미, 중국 압박해 탈북자 강제복송 막아달라(자유아시아방송) 중국으로 팔려간 탈북 여성들 남이도 떠나도 고통(연합뉴스)
대북지원		특이사항 없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12. 11.

■ 유엔북인권보고관 “귀순병 韓당국 의해 공개적 다뤄진 방식 유감”(연합뉴스)

- 몽골이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1일 “비무장지대(DMZ)를 넘어온 (북한) 병사의 최근 사례가 한국 내 당국에 의해 공개적으로 다뤄진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힘.
- 오헤아 키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북한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유엔 인권기제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북한 측이 해당 병사에 대해서 박해와 충격을 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병사의 수술 및 신체상태의 세부사항을 매우 참혹할 정도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 그의 프라이버시에 가해진 침해의 정도를 비난해야만 하겠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이는 인권 관점에서는 용납될(tolerable)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함.
- 오헤아 키타나 보고관은 기조연설 이후 청중의 관련 질문에 “나의 책임은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오늘 아침에 당국과 두 차례 논의했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함.

2017. 12. 12.

■ 안보리, 4년 연속 北인권유린 성토…“김정은 정권유지 수단”(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며 북한 당국에 개선을 촉구함.
-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안건으로 올려 논의함.
- 이날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세네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의 요구로 소집됨.
-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보는 회의에 직접 참석해 각각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함.

■ 폴란드 노동부 “숨진 북한 노동자 보상금 지급…유족 전달 여부 확인 안돼”(미국의소리)

- 3년 반 전 폴란드의 한 조선소에서 숨진 북한인 노동자의 유족 앞으로 보상금이 전달됐지만 실제 수령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폴란드 노동부가 밝힘. 대신

- 받아간 사람이 있었지만 전달 약속을 이행했는지 알 수 없다는 설명임.
- 폴란드 노동부는 2014년 자국 내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사고로 숨진 북한인 용접공의 임금과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확인함.
 - 폴란드 노동부 산하 고용근로감독기구는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숨진 북한인 노동자를 고용한 '크리스트 조선소'가 월급과 보상금을 어떤 이에게 전달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함.
 - 이어 돈을 대신 수령한 사람이 유가족에게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지만 조사 결과 유가족이 월급과 보상금을 전달받은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함.
 - 폴란드 고용근로감독기구는 회사가 숨진 노동자에 지급한 정확한 액수나 대신 수령한 사람의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 수 없다고 덧붙임.

■ “북 납치문제 해결 난망” 전 주한미군 일본서 사망(자유아시아방송)

-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 월북했다가 2004년 일본에 정착한 찰스 로버트 켄킨스가 지난 11일 사망했다고 일본의 NHK와 교도통신이 12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인 77살 켄킨스는 주한미군으로 근무 중이던 1965년 비무장지대 근무 중 탈영해 월북했다가 39년 동안 북한에서 생활함.
- 켄킨스는 북한에서 일본인 납치피해자인 소가 히토미와 1980년에 결혼해 두 딸을 뒀으며, 아내가 2002년 일본으로 먼저 귀국한 뒤 2004년에는 두 딸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경유해 일본에 도착함.
- 과거의 탈영 사실로 같은 해 미 군법회의에서 금고 30일의 판결을 받았지만, 형기 단축으로 석방됐고, 이후 아내의 고향인 니가타 현 사도 시에 정착해 영주권을 취득한 뒤 가족과 함께 생활함.
- 켄킨스는 2012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생활이 행복하다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는 북한 정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2007년에는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태국, 즉 타이 방콕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태국인 납치피해 여성에 대해 증언하기도 함.

■ 국제변협, ‘북 반인도범죄’ 김정은 등 제소 촉구(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 혹은 국제특별재판소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반 인도적 범죄 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국제변호사협회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함.

-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 언론인회관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반 인도적 범죄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는 로마협약에 의해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 11개 항목 중 살인, 몰살, 노예화, 추방 및 강제이주, 불법감금, 고문, 성폭력, 박해, 강제실종 등 10가지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밝힘.
- 특히 북한의 정치체계에서는 영아살해를 포함한 조직적인 살인, 고문, 기독교인 박해, 강간, 강제낙태, 기아와 사망에 이르는 과중한 노동 등 수용소 내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분명히 밝힘.

2017. 12. 14.

■ 유엔 북인권보고관 “북 책임 규명위해 사법 전문가 채용 예정(자유아시아방송)

-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사법 전문가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힘. 또한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함.
- 지난 11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나흘간의 방한 결과를 발표함.
- 이 자리에서 키타나 보고관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사법 전문가 채용 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미리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힘.
- 키타나 보고관은 “북한 당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측면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정책을 막고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청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 “북한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상정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함.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 키타나 보고관은 북한 내에서 일하는 유엔의 인도주의 기관들이 대북제재로 인해 송금과 물자 조달 부분에서 장애를 겪고 있다고 언급함.

■ 키타나 北인권보고관 “女종업원들 면담추진…경위 확인해야”(연합뉴스)

-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4일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지난해 집단 탈출한 여종업원 12명과 관련해 “종업원들과 면담을 추진 중이다.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라고 밝힘.

- 방한 중인 오헤아 키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경위로 이 사안이 전개됐는지 확인하는 게, 그래서 분명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외교부 차관 등을 만났을 때 이 사안을 제기했다며, 이 사안에 관심을 두는 이유에 대해 “내 사무실 사람들이 접수한 증언들을 받아봤는데 사건 경위와 관련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inconsistencies)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이어 “첫 번째로 파악해야 할 것이 (이들이) 중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입국하기로 한 결정이 자의에 의한 결정인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상황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미 헤일리 대사 “북한정권 인권유린 끝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미국의소리)

-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고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말함.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끝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함.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1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탈북자 지현아 씨와 조유리 씨를 만남. 헤일리 대사는 두 사람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함. 헤일리 대사는 특히 다른 나라에서 자유를 찾은 탈북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고 있다며, 이들 탈북자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끔찍한 인권 유린을 증언하고 있다고 함.

2017. 12. 15.

■ 로버트 킹 전 특사 “북한 정권 교체 없이도 인권 개선 가능”(미국의소리)

- 북한 인권 상황은 정권 교체 없이도 개선될 수 있다고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음.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해 내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함.
- 킹 전 특사는 지난 12일 하원 외교위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정권 교체 없이도 인권 상황이 개선된 사례들이 많다면 북한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말함.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정권 교체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함.
- 또 만약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북한 내부로부터 비롯돼야 한다고 덧붙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효율적 방안으로는 대북 정보 유입을 꼽음.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정보 확산의 중요성과 역할을 거듭 강조함.

-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이 문제 해결을 다소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12. 12.

■ 北유엔대표부 “인권문제 없다”…안보리 인권논의 반박(연합뉴스)

- 북한은 1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4년 연속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한 데 대해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함.
-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이날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해 “핵보유국 지위에 오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에서 패배한 적대세력들의 절망적 행동”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함.
- 북측은 또 “미국이나 적대세력이 안보리에서 인권논의를 통해 공화국을 공갈할 생각이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임.

2017. 12. 13.

■ 북한 석탄가격 작년의 반 토막(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의 대북제재로 석탄수출이 막히면서 북한의 석탄 가격이 예년에 비해 반토막 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석탄으로 난방하는 북한주민들은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되었다고 함.
- 굶주림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북한 주민들의 겨울철 추위와의 싸움이 금년엔 좀 수월해질 전망인데 북한의 내수용 석탄 가격이 작년에 비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임.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평양 주민 소식통은 “미제 덕에 금년엔 석탄가격이 크게 내려 그 어느 해 보다 겨울을 나기가 수월해 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소식통은 “작년 이맘때 석탄 1톤 가격은 품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만원(북한돈)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한창 추운 시기인데도 톤당 13~14만원 정도 한다”고 전함.
- 소식통은 그러면서 “조선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날씨가 추워지기전인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난방용 석탄을 미리 사놓는데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부터는 석탄값이 크게 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북, 휴대전화 훔친 후 돈 요구하는 범죄 급증(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사법당국이 지난해 9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손전화를 훔치는 범죄자들을 모조리 색출해 엄벌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으며 훔친 손전화를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범죄가 극심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 11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김정은이 지난해에 이어 최근 또다시 손전화를 훔치는 범죄자들을 모조리 색출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며 “손전화를 훔친 후 돈을 요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려 이 같은 지시가 거듭 내려진 것”이라고 말함.
- 소식통은 “손전화를 훔치는 범죄자들을 엄벌할 데 대한 지시는 지난해 9월 9일에 김정은이 직접 내린 바 있다”며 “하지만 이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손전화 도둑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이번에는 사법기관들을 호되게 질책했다”고 덧붙임.
- 이와 관련 12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도둑 맞거나 잃어버린 손전화를 돌려받는데 드는 값은 전국적으로 50불로 고정돼 있다”며 “달러로 50불이 없으면 중국 인민폐 3백위안 혹은 내화(북한 돈)로는 37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12. 11.

■ 태영호 “김정은, 북 주민 의식 변화 두려워해”(자유아시아방송)

- 태영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이 ‘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한국의 ‘국회인권포럼’이 공동수여하는 ‘2017 올해의 인권상’을 11일 수상했음.
- 김정은 체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선제공격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라고 태영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이 지적함. 태 위원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유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함.
- 태 위원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강조함. 무인기로 북한 중심지에 전단이나 미국 달러 등을 살포해야 한다고 말함. 특히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음.

2017. 12. 12.

■ **한국 국가인권위, 유엔에 북한 억류 한국인 조사 요청(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유엔 차원의 조사를 요청함.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직접 청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지난 달 서한을 보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힘.
- 인권위원회는 서한에서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 국민의 생사와 건강 상태 등을 한국 정부에게 제공하도록 촉구해달라고 요청함.
- 아울러 북한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해줄 것을 촉구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12. 12.

■ **미, 중국 압박해 탈북자 강제복송 막아달라(자유아시아방송)**

- 중국 내 탈북자 실태를 알아보고 강제복송 중단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청문회가 미국 의회에서 열림. 여성 탈북자 2명이 미국 의회에 나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복송을 막아 달라고 호소함.
-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세계인권·세계건강·국제기구 소위원회는 12일 청문회를 열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에 관한 증언을 들음.
- 성경책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북한 보위성에 붙잡힌 뒤 여러 차례 탈북과 복송을 반복해야 했던 지현아 씨는 “이제는 중국 공안까지 나서 탈북여성 인신매매를 일삼고 있다”며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함.
- 탈북자 한가희 씨는 “중국에 숨어 있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복송되면 폭력과 고문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총살까지 당한다”고 주장함.
-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들어 탈북자 수가 크게 줄었다며 이는 강제복송과 인신매매 등 중국 내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및 인권유린 때문이라고 지적함.

■ 중국으로 팔려간 탈북 여성들, 남아도 떠나도 고통(연합뉴스)

-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의 꾀에 넘어가 중국 농촌 총각들에게 팔려간 탈북 여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AP 통신이 13일 집중 조명함. AP는 인신매매된 탈북 여성 7명과 중국인 남편 3명을 심층 인터뷰함.
- 한 여성(53)은 2006년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국경을 넘었지만,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중국인 농촌 총각(55)에게 2천100달러(약 229만원)에 팔리는 신세가 됨. 그녀는 “처음에 왔을 때 북한에 있는 애들이 걱정돼 종일 술만 마셨다”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함.
- 그녀는 “깨어났을 때 중국에서 낳은 딸도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남편과 딸을 생각해 남한으로의 탈출 기회를 포기했다고 밝힘.

5. 대북지원

■ 특이사항 없음